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이 COVID-19가 우리 곁에 살며시 찾아와 이젠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친근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았고 사역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기나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사역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은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4차 파동이 시작되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길거리의 모습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도(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842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각 국가와 항공사들이 남아공의 입, 출입을 제한하는 등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사역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

남아공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은 순환 정전을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해 지역별로 하루 세 차례, 두 시간씩 정전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아공 3분기 실업률은 34,9%로 치솟았고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같은 시험에 정전으로 인하여 촛불을 켜고 시험을 준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단지내 Community에서는 전기료 체납으로 인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기가 차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Community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어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의 공포

코로나로 인하여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범죄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달 사이 남아공에서 9556명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전체 성폭행 사건 중 1383건은 술, 마약과 관련돼 있으며, 약 400건은 가정 폭력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살인 사건은 지난해 7~9월에 비해 21%나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남아공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헌팅톤 소명교회 예배당 건축 중



계속되는 우기와 오미크론, 그리고 휴가시즌으로 인하여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감격에 최선을 다하는 도날드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이 감사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질 예배당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의 피로를 달래봅니다.

릴리델리 성도교회 예배당 페인트 공사



250여명이 모이던 교회가 10여명으로 줄었다가 이제 좀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 뭔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마음과 교회에 활기를 주기 위해 페인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에 건축되어 많이 낡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깨끗하고 아름답게 페인팅 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마스크 도착 및 나눔



정확히 5달 11일만에 남아공에 도착하였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던 우리를 감동케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계산법이었습니다. 소포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새로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표된 엄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무더진 마음이 일상이 되어 살가는 이들에겐 마스크는 물론이고 유행병에 대한 주의가 산만해져 있는 시점에 마스크가 도착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포장하여 마스크를 보내주신 이천 영광순복음교회와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든 변함 없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시길 소원하며 인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2021년 12월

김창길/박성자선교사드림